

마을공동체의 이해와 성공적인 마을만들기 조건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최봉명

1. 마을공동체의 역사와 의미

□ 공동체에 대한 개념

사람들이 모여 유기체적 성격의 조직을 이루고 목표나 삶을 공유하면서 공존할 때 그 조직을 공동체라 일컫는다.

여기에는 단순한 결속보다는 질적으로 더욱 강하고 깊은 관계의 형성은 물론, 구성원 상호간의 의무와 책임감, 정서적 유대, 공동의 이해관계와 공유된 이해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는 과정이 모두 포함될 때 비로소 공동체를 이루었다 할 수 있다.

즉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공유된 실천관행에 참여하며, 상호간에 관계를 맺고, 도덕적 판단기준이 공유 또는 구축되는 장으로서 공동체는 존립의 가치를 갖는다.(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김미경, 김영희, 서동희 2004)

□ 공동체 의식의 형성 및 역할

공동체 구성원의 사회적 결속과 관련된 집합의식 또는 그 집단 전체의 공통된 의식을 가리킨다.

공동체 의식은 사회의 평균적인 구성원들에게 공통된 감정과 신념의 총합으로서 하나의 확고한 체계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은 물론, 개별 구성원들 각자의 개인의식에 대해 일정 수준의 규제력을 갖는 점이 특성이다.(한상복 1982)

□ 마을공동체의 의미

마을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 사회적 범위를 지칭하며,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자치적 형태의 공동체를 마을공동체라 한다.

작은 단위의 모듬살이로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공동체로서의 문화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급적이고 정치적으로 자치적이며 문화적으로 자족적이어서 사회적 자립 구조를 이루고 있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곧 마을공동체이다.

궁극적으로 현대사회에서 마을공동체의 재구성이라 함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마을공동체가 형성,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임재해 2008)

□ 공동체 논의의 흐름

세계사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그에 따른 변화가 이루어진 계기는 무엇보다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던 시기, 중세적 개념의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사회의 분업과 물질중심의 사회현상이 발발, 집단보다는 개인에 의존한 사회가 초래된 데 대한 반발로서 점차 공동체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었다.

19세기에는 이상적 공동체적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이에 대조적으로 암울했던 현실에 대한 비판과 앞으로 지향할 사회의 청사진으로서 공동체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표피적으로 단순·획일적인 측면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20세기 들어 보다 분권적이고 영역화된 형태로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정부·기업·시민사회가 상호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다양한 시민참여와 지역발전을 위한 공·사 협력체계를 이루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보편화 구상 단계로까지 접어들게 되었다.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주민구성원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민관의 공동생산 및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공동체 확산 운동이 제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 또한 최근의 경향 중 하나이다.(김미경, 김영희, 서동희 2004)

□ 마을공동체의 역할 재인식과 마을 만들기 운동

오늘날 마을 만들기 운동이 전개됨에 있어 바람직한 형태로 구현하고자 하는 마을공동체 상은 ‘그 장소의 역사와 특성은 물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으로서, 자본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던 도시공간이 사람들의 생활세계를 담아내어 삶의 향기와 생기, 이웃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소통의 공간’으로의 재편이다.

즉, 폐쇄적이고 닫혀있는 사적 공간의 무미건조한 집합체였던 도시공간 곳곳을 마을공동체로 채워나감으로써 이웃과의 소통과 관계형성을 바탕으로 공공의 가치를 더불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공동체적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곧 적극적 실천행위로성의 마을 만들기 운동의 목표라 할 수 있다.(김은희 2005)

□ 공동체 회복의 시도와 그 필요성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도시편중체제·전체 산업구조 불균형 상황에서 특히 도시화가 빠르게 확산될수록 변화의 속도에 비례하여 공동체가 그 지속성을 잃는 것은 물론 대안 형태의 공동체 조차 바람직한 선례로서 확산되지 못하고 실험만으로 머무르게 된다면 더더욱 불투명한 미래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 처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근대화 이전의 공동체를 되돌아봄으로써 소멸되고 약화되었으나 복원되어야 할 가치를 찾아 현재에 되살리고자 하는 노력 역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근대화 이전의 공동체를 되돌아봄으로써 소멸되고 약화되었으나 복원되어야 할 가치를 찾아 현재에 되살리고자 하는 노력 역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 전통적 형태의 마을공동체

전통적 형태의 공동체는 마을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혈연과 지연에 근간을 두고 일, 놀이, 신앙, 의례의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공동체 스스로가 나름의 운영체제와 생활방식을 만들어 이어져온 방식으로 존재해왔다.

즉 공동체 문화는 오랜 동안의 경험과 현실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정착되어온 전통으로서, 검증된 지식과 정보의 총합,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된 만큼 실용성과 구체성을 생명으로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이해준 2005)

□ 전통적 마을 공동체 생활세계를 이룬 네 가지 범주

사람들의 생활세계는 크게 노동활동과 유희활동, 제의활동, 의례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네 가지 범주의 활동들이 한데 모여 전통적인 공동체에서는 유기적인 마을세계를 이루었다.

전통사회에서는 네 범주의 활동이 그 경계가 명확치 않아 노동과 유희가 다른 의례 활동과 함께 어우러지기도 하는 등 각각의 활동범주를 넘나들며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상호 연결고리로 이어져 공동체에 유기적인 생명력과 동인(動因)을 부여하였으나, 현대사회로 갈수록 생활세계에서의 활동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놀이를 하면서 일의 생산성을 높인다거나 하는 행태의 어우러짐이여의치 않아 배타적 관계로서 정립되어 왔음(임재해 2008)

즉 현대의 생활세계에서 ‘일’과 ‘놀이’가 서로 대척점 상에 놓여 동시에 일어나거나 공유되기 힘든 이분법적 범주로 나뉘어있다면, 전통적인 마을공동체에서는 일터에 나가는 와중에도 신명을 돋우기 위해 함

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곁들이고, 구성원들이 모두 모여 신명나게 노는 한판임에도 협동을 통한 노동의 과정이 매 순간 녹아있는 등 생활세계의 활동 모두가 상생의 관계로 얹혀 있는 다분히 공동체적 생활양식을 보유하고 있다.

일제는 일사분란하고도 효율적으로 조선을 광범위한 식민 체제 항에 편입시키기 위하여 근대화를 빌미로 한 전통적 마을 공동체의 개조 수순에 돌입하였다. 을사늑약(乙巳勒約)이후 1910년을 시작으로 1918년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토지조사사업의 실시를 통해 일제는 식민통치를 위한 기반의 마련과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 자본주의적 토지제도의 확립을 꾀하였다.

행정구역·사회적 기반시설 등을 재설정하는 것은 물론, 전통적 양반계층의 지주권을 일제법상 식민지적 지주계층으로 재편하는 것은 물론 무연고 토지를 국유화함으로써 통치기구의 재정을 확보, 모든 자원과 조세 원천 파악을 통해 수탈경제(收奪經濟)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일조하였다.(두산백과)

결국 전통적 마을공동체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토지가 대부분 국유화되면서 촌계의 주요 재원이 되었던 마을의 공유 전답이나 임야가 국고로 귀속되는 것은 물론,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구호하고 마을을 안정시켜왔던 마을 공동체 구휼제인 환곡제도가 소멸함으로써 자족적 공동체로 결속할 수 있었던 마을의 물질적 토대가 유명무실화 되어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었다.

또한 일본의 지주에 의한 식민 지주제가 발달하면서 강압적 소작료 수탈에 의해 마을 주민 간에 물질적 상부상조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소작농의 잦은 교체로 인해 주민들 사이의 호혜(互惠) 관계가 무너져 구성원간 경쟁과 대립관계가 형성됨으로써 공동체의 내적 공력조차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이윤갑 2005)

□ 역사적 격변기와 근대화·산업화의 영향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의 과정 속에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인위적으로 궁성원의 내·외적 혼재와 공간의 분화 등으로 도시는 전반적으로 현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일제 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며 일거에 개발과 파괴 등 공간구성에 있어 급작스러운 변화를 맞게 된 것은 물론, 기존에 유지되어 오던 공동체가 약화·소멸되는 동시에 새로운 이주민 거주 군락이 곳곳에 형성되는 등 끊임없는 외부의 영향 하에 탈바꿈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

□ 현대사회에서 공동체 생활양식 변모의 양상과 문제들

삶의 질이 경제적 풍요로움으로 대변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이를 위해 값비싼 사교육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나은 학벌의 취득, 안정적인 급여가 보장되는 일자리에 이르기까지, 경제력으로 일차적인 목표가 수렴되고 모든 과정이 일률적으로 경쟁을 위해 수단화되는 시스템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러하면 공동체 내에서 공동·공유의 힘으로 이루어지던 노동의 형태를 놓고 보아도, 체계적 억압으로부터 가해지는 제약수준이 계층에 따른 양극화 현상을 보임으로써 일자리 선택에 있어서도 쉽게 기회의 평등을 맞이하기 어려워진 것은 물론, 약자에게 가해지는 노동안정성의 불평등 상황 심화 등 공존·공생의 문화로부터 제로섬(zero-sum)상황으로 치닫는 난제들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또한 도시전반에 향락의 제공이 주된 목적인 산업구조가 확산됨으로써 생산적 유희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본의 논리에 의한 경제력과 여가 수준의 차이에 따라 유희를 즐길 수 있는 수단의 질적 수준이 결정되는 등 놀이문화 자체가 계급화의 지배를 받게 되는 양상을 보인다.

□ 지나친 국가주의 교육으로 인한 폐단

근대로부터 심화, 강조되어 온 국가주의 교육관의 영향으로 국가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하는 인간 육성에 목표를 둔 국민교육이 현재까지도 주류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마을에서 성장하면서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이 정작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은 잘 모르면서 국가의 역사부터 배운다. 이런 것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 동안 우리가 배웠던 역사

는 국가와 사회의 역사이지 한 개인의 역사와 마을의 역사는 아니었던 셈이다.”(이영남 2008)

□ 마을만들기 운동의 시작-공동체 재구성의 필요성 인식

고래로부터 근대화, 산업화 이전 전통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사소한 문제로부터 중차대한 이슈에 이르기까지 여럿의 의견 교환을 거쳐 중지를 모아 최선의 방책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하는 공동체의 지지적 역할에 의존해 왔다.

인간이 정체성을 찾고 성장의 과정을 거치는 데에는 반드시 공동체내의 소속감과 그 영향관계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며, 공동체가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하였거나 미성숙한 환경 속에 성장하게 된 개인은 불균형한 자아와 모순된 사회체계·구조의 틀 사이에 갈등을 겪게 된다.

정보통신 매체 및 교통의 발달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적 관계망의 도달범위는 저 세계를 아우를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으나 이에 반비례하여 물리적 거주 공간을 매개로 한 공동체의 의미는 점차 퇴색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 체계의 구조적 억압으로부터 불가항력으로 다가오는 관계단절, 파편화, 소외현상, 상실감, 불안감, 좌절 등의 문제에 반하여 인간은 안온한 소속감을 갈구함은 물론, 이를 위해 공동체의 기억을 반추하고 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자각하는 경험을 안고 살아간다. 이것이 곧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의 회복이 절실한 이유 중 하나이다.

또한 공동체적 ‘연대와 참여’라는 대원칙 하에서 공동체에 속한 개인은 자유로이 사회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소속감·연대감·책임감에 의해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온 경험과 의지로써 경제·조직 등 삶의 다른 영역들에 있어서도 직접적 통제에 참여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권력 불평등의 근원 및 위로부터의 구조적 억압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부여받음으로써, 개방적이고도 현실적인 토론의 과정을 통해 개인·집단은 견해를 제안할 동등한 기회를 갖는 것은 물론, 타인의 견해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견해를 공식화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의 진정한 실현을 가능케 한다.(김미경, 김영희, 서동희 2004)

□ 새로운 마을공동체 구성

공동체는 집단과 개인의 관계를 지혜롭게 조율하여 집단의 유지를 위한 동력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의 질서를 부여함과 동시에 개인이 집단 속에서 억압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율성이 특히 잘 보장되어야 한다.

전통적 시각에서 본 공동체의 기본 속성이 지역성과 긴밀한 사회적 관계, 동질적 유대감으로서 지역사회에서의 상호작용과 관계형성의 결과로 나타나는 공동체의식으로 설명된다면, 현대적 공동체의 속성은 지역성의 비중이 보다 낮아진 형태의 구성원 간 활발한 관계망의 형성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즉, 시민단체 등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의 활동과 협력체계의 조성,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주민자치,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상화신회의 구축이 공동체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김광익 2000, 강철희, 홍현미라 2002, 김미경, 김영희, 서동희 2004)

□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 마을공동체

국가가 중앙집권적 권력의 유지와 일률·일방적 통제를 위해 지역을 행정적 통치단위로 분할하여 최대한 구성원들을 체제에 복속시켜왔던 것이 예전의 방식이라면 이러한 중앙주도·수직적 통치의 하달 방식이 가져온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의 자치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뿌리를 내려 국가에 속한 국민이 아닌, 시민·주민으로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의 삶에 처한 현실적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 성공적인 마을만들기 조건

□ 마을만들기의 의미와 등장배경

마을만들기는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마을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마을’이란 주민들이 생활하는 삶터로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라 할 수 있는데, 혹자는 ‘마실을 다니 만한 거리의 촌락 단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런데 마을을 단순히 공간적 범위로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주민들 간의 친밀한 관계망 또는 공동체적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마을의 공간적 범위는 매우 유연하게 변화도리 수 있기 때문이다.(이호, 2012) 따라서 마을은 지리적인 범위와 더불어 주민들이 관계망이나 공동체에의 형성 범위를 함께 고려할 때 규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마을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주민들이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것에 다름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공동체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마을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이 주민들 속에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주민공동체의 형성은 마을내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생활공간으로 변화시키는 활동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확대되고 그 결과로서 주민들간의 관계망이나 결속력이 더욱 강화되기 때문이다. 즉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과 주민공동체의 형성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마을만들기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된다.

마을만들기라는 용어가 우리사회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의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의 번역어가 1990년대 이후 국내에 회자되면서부터이다. 마을만들기로 번역되는 마치즈쿠리는 일본의 고도성장기였던 1960~1970년대 국가주도의 개발정책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되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심각해진 공해문제 등 생활환경의 악화에 대응하여 주민들의 반대투쟁이 확산되었고, 1970년대로 넘어오면서 주민주도의 생활환경개선운동, 수변환경보존운동, 역사마을보존운동 등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젊은 도시계획가, 건축가, 연구자들이 주민들의 자발적 활동에 결합하면서 마치즈쿠리에 대한 광범위한 제안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흐름은 198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본격화되었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마치즈쿠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마치즈쿠리 지원센터와 마치즈쿠리 펀드가 설치되었다. 특히 1995년대 후반은 재정부족으로 행정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드러나는 시기였다. 이러한 여러 배경으로 인해 행정과 주민이 협력하여 마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마치즈쿠리 활동이 일본에서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이창호, 2012)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마을만들기 개념이 들어오기 전에도 지역주민운동, 지역사회운동 등의 명칭으로 마을에 근거한 다양한 활동이 있어 왔던 게 사실이다. 물론 이 당시에는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행정과의 협력은 기대하기 어려웠고 주민들과 민간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였다. 산동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시빈민운동, 아파트 공동체 운동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그 후 일본의 마을만들기 개념이 소개되면서 점차 지자체나 중앙정부도 주민참여에 기반한 마을만들기 활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미 도시연대, YMCA 등의 민간단체들이 주민들과 함께 차없는 거리 조성, 꽃길 골목 가꾸기, 담장 허물기 등의 마을만들기를 진행하던 차에, 광주광역시 북구가 2004년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하였으며, 서울시는 2000년부터 한옥마을로서 북촌 가꾸기 정책을 시행하면서 2008년 이후 지구단위계획에 바탕을 둔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서울휴먼타운사업 등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정석, 2012) 또한 중앙정부는 2007년부터 ‘살고 싶은 도시/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역정체성 확립, 마을공동체 형성, 지방자치 활성화,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산 등을 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행정이 인식한 결과라 할 수 있다.(김은희, 2012)

□ 성공적인 마을 만들기의 조건

마을만들기는 마을의 고유한 특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형적이거나 단일한 모델이 있을 수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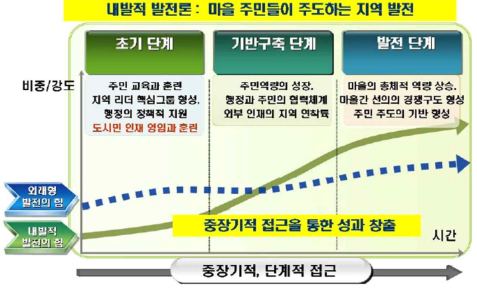
다. 하지만 성공적인 마을만들기를 위한 몇몇의 조건과 관련한 시사점은 도출할 수가 있다. 우선 크게 운영원리와 협력·지원체계로 나눌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이 각각 4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마을만들기는 지역주민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일부 성공사례에 대한 단순모방이나 외부 전문가들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마을만들기는 주민들의 주도적 참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특성화된 마을만들기 사업의 선정과 개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의 관심사는 물리적 환경정비, 소득창출 등 경제활동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교육·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클 수도 있으므로, 마을의 상황과 주민들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포 성미산 마을만들기	대구 삼덕동 마을만들기
	
부모가 직접 기금을 모아 운영하는 공동육아 또바기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들이 모여 아이들의 먹거리부터 교육까지 함께 토론하며 공동육아뿐만 아니라 생활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다.	이웃과의 소통공간을 꿈꾸던 한 주민에 의해서 담장이 허물어지고, 담장이 있던 자리는 마을공원으로 변모했다. 그곳에는 아이들의 놀이와 주민들의 목소리, 이웃간의 나눔이 존재한다.
자료: 또바기 어린이집 카페; 오마이뉴스 기사(2006.7.6); 김은희(2005)	

둘째, 마을만들기는 단기적·외형적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 실제 주민주체가 형성되어 마을만들기를 안정화시키기까지 평균 10여년이 소요된다는 논의도 있듯이(차성란, 2010), 마을만들기의 성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으며 주민들이 지속적인 참여, 상호학습과 협력, 시행착오 등을 경험하면서 문제해결 역량을 축적하기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된다. 대개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1년 단위의 회계연도에 따라 진행되므로 단기적 성과가 중요시되고, 외형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정비가 선호된다. 그러나 주민참여에 기반한 마을만들기는 물리적 정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손으로 가꾸어가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매력을 만들어어나가는 것이므로 보다 긴 안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안산시 석수골 마을만들기	전북 진안군 마을만들기
 1단계 2단계 3단계 석수초등학교 일대마을기 사업으로 확장 (2009)	내발적 발전론 : 마을 주민들이 주도하는 지역 발전  초기 단계 기반구축 단계 발전 단계 비중/강도 주요 교육과 훈련 지역 리더 핵심그룹 형성 행정적 정책적 지원 도시민 전체 영입과 훈련 주요사업의 성장 행정과 주민의 협력체계 외부 인력의 지역 정착력 마을의 총체적 역량 상승 마을간 선의의 경쟁구도 형성 주민 주도의 기반 형성 외재형 발전의 한계 내생적 발전의 한계 중장기적 접근을 통한 성과 창출 중장기적, 단계적 접근 시간
다가구주택 사이에 둘러쳐진 벽을 허물고 그 자리에 미니 정원을 만들었다. 처음으로 4개의 미니정원이 만들어지자 사람들이 정원에 모여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변화를 실감한 주민들은 마을정원 만들기에 나섰다. 마을정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석수초등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으로까지 이어졌다.	진안군은 행정과 주민의 신뢰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고, 마을 주민들이 주도하는 지역 발전을 위해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당장의 성과보다는 훈련과 과정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 류홍번(2012); 구자인(2012)	

셋째, 최선이 아닌 차선이라도 상호합의를 통한 결정이 중시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원칙만 강조하거나 법과 제도적 규정을 앞세우는 태도, 단기적 이익에 경도되거나 방관자적 태도는 합의를 중시하는 마을만들기를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차선이라도 합리적 결정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특정 계층이나 집단이 소외되지 않도록 여러 집단을 참여시킴으로써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갈등은 생각의 차이이므로 갈등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다.

은평구 보행자 중심의 마을만들기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
 서울시 불광2동 연천초등학교의 통학로 만들기는 ‘일방통행 반대와 찬성’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되었지만, 다른 지역의 통학로 답사, 공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하여 서로의 입장 차이에 대해 존중하고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한 주민 모니터단을 함께 구성하였다.	 1996년 상인들이 자신들의 공간을 차없는 거리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이후 지자체, 노점상과의 갈등 및 충돌이 이어졌고, 이웃상점가와 차량소통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금씩 합의점을 찾아나갔고, 이제는 차없는 거리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했다.
자료: 강순천(2011); 인태연(2011)	

넷째, 민관협력을 통해 문제해결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 사실상 하나의 주체만으로 마을만들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주민, 행정, 전문가, 민간단체 각자의 고유한 역량과 자원을 결합시켜 시너지를 발휘할 때만이 성공적인 마을만들기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주체들이 수평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여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안산시 꽃우물 마을만들기	광주시 시화문화 마을만들기
아이기가 있는 꽃우물 마을만들기 사업 안산시 화정동은 도심에 인접한 농촌형 전원마을로, 500년된 느티나무, 화정천의 발원지, 100년된 화정교회가 있다. 그린벨트 해제로 공장 및 대형건물리 들어오면서 전원마을 상실위기에 처했다. 이에 마을운영위원회, 어린이도서관, 화정교회, 안산시 자치행정과, 전문가, 시공업체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마을박물관 조성 등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 북구 문화동에서는 2002년부터 시화관을 담장에 부착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유명시인의 작품뿐만 아니라 주민백일장 입선작, 문인화 및 서예가의 작품도 시화관으로 제작하였다. 이를 위해 북구청과 문화동 주민센터가 TF팀을 결성하여 행정지원을 하고 있고, 문인예술단체와 주민자치위원회가 협력하여 시화문화마을의 기획·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자료: 류홍변(2012); 서수정·임강륜(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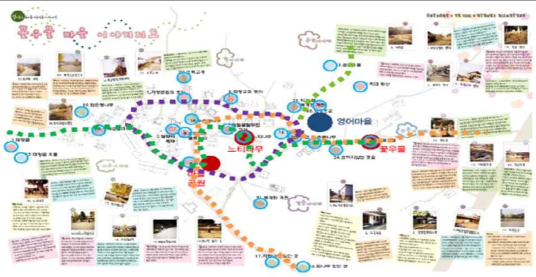
다섯째,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 조직화가 관건이며, 마을만들기를 이끌어 나갈 핵심주체로서 주민리더의 양성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적극적 참여자가 아닌 소극적 지지자에 머물 경우, 전문가나 민간단체가 마을을 떠나게 되면 마을 만들기가 정체될 수밖에 없으며, 자칫 전문가에 의한 ‘마을만들어주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주민참여는 이견제시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마을만들기의 기획·운영·관리의 모든 영역에 걸쳐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주민들이 지역과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숍, 자원동원 등 다양한 사회행동의 방법을 학습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나아가 주민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마을에 관심있는 주민들을 발굴하여 이들을 주민리더로 양성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리더는 외부지원이 중단되어도 마을만들기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발성과 역동성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강동구 서원마을	안산시 대학동 마을만들기
마을 조사단계에서부터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설명회, 워크숍 등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주민들은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직접 지역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추후 전문가 및 행정의 관여가 없어도 자체적 지역문제해결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쓰레기 불법투기와 분리수거 미정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노력이 필요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분리수거함 운영관리 교육을 실시하였고, 마을회의를 통해 쓰레기 분리수거함 제작방안, 분리수거함의 배치 및 관리방법 등을 결정하였다.

자료: 유나경(2010); 류홍변(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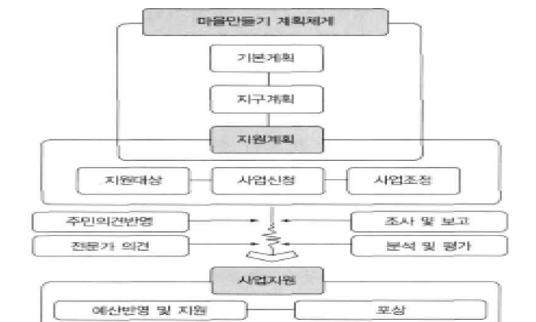
여섯째, 전문가, 민간단체는 주민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행정과 주민을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일부 전문가나 민간단체들은 정답을 제시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과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외부 주도의 마을만들기는 주민의 자생력을 키우기 어렵고, 외부조직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마을만들기가 좌지우지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전문가는 모범답안 제시자가 아닌 과정의 설계자로서 절제된

개입이 필요하며, 민간단체는 주민교육 및 훈련, 정보제공, 주민모임의 활성화 등의 역할을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강동구 서원마을	안산시 꽃우물 마을만들기
 주민설명회를 통해 서울시 휴먼타운 시범사업의 취지를 주민들과 공유한 후, 전문가들과 주민협의체가 함께 워크숍을 통해 마을만들기 계획을 구체화했다. 전문가들은 워크숍 결과를 도면 등으로 시각화 한 후, 행정과의 조율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으로 발전시켰다.	 주민이 마을보물을 직접 발굴복원한다는 컨셉으로 안산YMCA와 대학연구팀이 주민과 함께 마을탐방코스를 작성하였다. 주민들이 발견한 마을보물 25가지는 순차적으로 복원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마을만들기마스터플랜에도 반영하여 예산확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료: 서울시 홈페이지; 류홍번(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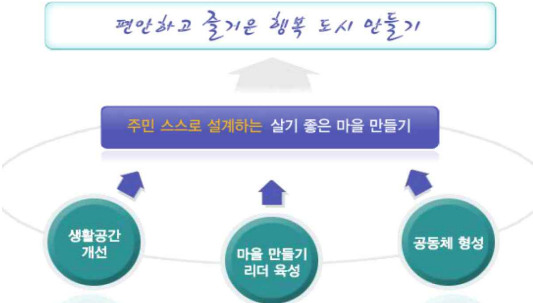
일급제, 마을만들기의 조력자로서 행정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행정의 지나친 개입은 행정에 대한 의존 혹은 주민과 행정의 대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민관협력을 중시하되 마을만들기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행정은 정책수립, 예산지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주체들이 상호학습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지원조례 제정, 마을만들기 전담팀 신설, 타 부서들과의 협력 등을 통해 실질적인 마을만들기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나 법령 및 관례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관행에서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전북 진안군 마을만들기	광주 북구 마을만들기
 2007년 전국 농촌 최초로 마을만들기 담당을 신설하여, 마을단위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사무국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순환보직제 적용에서 제외되어 4명 중 3명은 만 4년간 근무 중이다. 또한 8개부서의 담당이 참여하는 행정협조회의를 운영함으로써 부서간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2001년 심포지움을 통해 마을만들기 조례 및 전담조직의 개편 필요성이 제시된 이후, 3년의 준비를 거쳐 2004년 조례를 공포하였다. 조례는 총칙,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 위원회 등 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제2장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의 지원, 주민의견수렴 등이 규정되었다.

자료: 구자인(2012); 윤주선(2008)

여덟째, 마을만들기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주민역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마을만들기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이 필요한데, 전문가나 민간단체들의 지원은 특정 추진단계에서 효과적일 수 있지만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상시적으로 마을만들기의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며, 이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담당해야 한다. 땅르만들기 지원센터는 마을만들기 학교 운영, 주민연수 및 교류회 개최, 선진사례 견학, 마을만들기 상담

및 컨설팅, 관련 정보의 축적 및 소통, 전문가 및 민간단체 연계 등을 통해 마을만들기 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전북 진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2007년 전국 농촌 최초로 마을만들기 담당을 신설하여, 마을단위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사무국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순환보직제 적용에서 제외되어 4명 중 3명은 만 4년간 근무 중이다. 또한 8개부서의 담당이 참여하는 행정협조회의를 운영함으로써 부서간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2001년 심포지움을 통해 마을만들기 조례 및 전담조직의 개편 필요성이 제시된 이후, 3년의 준비를 거쳐 2004년 조례를 공포하였다. 조례는 총칙,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 위원회 등 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제2장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의 지원, 주민의견수렴 등이 규정되었다.

자료: 안산시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자인(2012)

※ 강의 자료 출처 1. 마을공동체의 역사와 의미: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홍보자료(2012)
2. 성공적인 마을만들기의 조건: 경기도마을만들기지원방안연구(2012)